



시장질서의 확립

Philips전자 부장 김홍경
02) 709-152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자본이 경제상의 중심세력이 되어 무한히 이윤을 얻으려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이는 생산 수단의 사유(私有)를 없애고 이의 공유(共有)위에, 계획적인 경제를 시행하려는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와 대칭관계에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구조, 또는 그 바탕위에 이루어진 사회제도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누구나 자유로이 참가하여 유가증권(有價證券)을 매매하며, 수급(需給)의 실세(實勢)가 반영되어 가격이 성립하는 상태에 있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의 경쟁, 즉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조건으로 서로 겨루는 이른바 공개경쟁(公開競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유경제로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없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제, 이른바 자유주의 경제이어야 한다. 또 아무런 규제도 받

지 않고 남과 자유로이 경쟁하는 체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경쟁은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경제활동을 이르는 대표적인 말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전이라는 측면이나 경제상황에서 볼 때 계속 불완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여건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겪은 외환위기 이래 줄 곳 우리 경제의 키워드는 경제개혁이었다.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제도의 확립에 부합하는 경제 개혁도구를 우리는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직도 못다 푼 경제개혁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경제개혁은 곧 시장개혁을 의미한다.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기 전까지는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존의 잡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혹은 철폐하고, 시장을 완전 개방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이 결국 시장을 새롭게 형성하고 보다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질서가 보장되는 시장제도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결코 견실하다고 볼 수 없다. 음악에서 기초음(基礎音)이 중요하듯이, 경제의 기본적 조건(fundamentals)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외국에서는 우리의 경제를 가리켜 학생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비아냥거리며 평가 절하하였다. 아직도 배우는 학생수준의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결국 시장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음마 단계의 자본주의라는 비아냥거림일 것이다. 우리경제가 걸음로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막상 실상은 이의 핵심요소인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사실이 그러하였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개발 연대 이래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 그러한 관행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메카니즘은 자본주의체제의 보조장치가 아닌 주기능의 장치이므로, 시장 경쟁으로부터 격리된 질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경제(capitalist economy)라고 할 수 없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하면, 사회에 많은 돈이 흐르고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라고 하여도 불안하여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신인도(信認度)가 바로 이 펀더멘털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외없이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치열한 공개시장경제의 과정을 통과하고 얻어낸 그러한 값비싼 경쟁력이 아니면 결코 기업가치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다고 강담할 수 없다. 경기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의 펀더멘털의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불황기에 는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